

# 2만가구 분양, 해외 석화사업 날개... '1조 클럽' 무난

(영업이익)

## 건설, 飛上 2020 전략

### 대림산업

수술장갑 전문 美 사업부 인수로  
고부가 석유화학사업 글로벌 확장  
방배6구역 재개발단지 1131가구 등  
올 14개 단지서 2만357가구 공급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이 탄탄한 분양실적과 해외 석유화학사업 호조 영향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입성할 전망이다. 올해 주택공급은 14개 단지, 2만357가구를 계획 중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2165가구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대림산업의 매출액은 2조7100억원, 영업이익은 29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9조6630억원, 영업이익 1조6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사우디 마덴암모니아 프로젝트 공정 본격화로 본사 플랜트 및 해외법인 매출 증가 효과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 ◆영업이익 '1조클럽' 가입 전망

대림산업은 지난해 사상 첫 1조 클럽 가입에 이어 올해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0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1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려개발이 연결대상 종속 기업으로 편입,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개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PF 사업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고려개발은 부실사업 정리 및 구조조정 등 노력으로 2016년 영업이익



대림산업 사옥 전경. /대림산업

을 흑자로 전환,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이뤘다. 지난해 11월에는 8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면서 대림산업 연결기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고려개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5540억원, 400억원이다.

또한 북미 화학부문 사업 투자 확대도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 일환으로 수술용 장갑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수지와 라텍스 등을 생산하는 미국 크레이튼사의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합병(M&A)에 나섰다.

인수 예정금액은 6182억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작 공장 및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2분기부터는 실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어 태국 PTTGC와 합작해 미국 에탄크래커 석유화학 공장 개발도 검토 중이다. 투자규모는 총 8조원에 이르며 2026~2027년 완공 예정이다.

### ◆주택공급 2만357가구, 5~6월 집중

주택공급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14개 단지, 2만35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2165가구다. 올해 마수걸이 분양 단지는 '밀양내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는 오는 3월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총 560가구를 공급한다.

5~6월에는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몰려있다. 이 시기 분양 예정된 단지는 총 10개다. 이는 올해 대림산업 전체 분양 물량의 71.42%를 차지한다.

5월에 분양하는 단지는 총 5개다. '인

천 청천 2구역', '대구 학정 도시개발사업', '경기 광주 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진주 주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남 순천 공동주택 신축공사(2차)'가 이 시기 분양 일정을 잡는 중이다.

6월도 5개의 단지가 분양을 앞뒀다. '부산 가야역 주상복합 신축', '안양 덕현 재개발', '화성 남양 B11 공동주택', '김포 마송 2차', '충남 서산 석림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분양 예정이다.

하반기인 8~11월에는 3개의 단지가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8월에 '인천 영종 3차', 10월 '거제 2구역', 11월에 '아크로파크 브릿지'가 분양을 앞뒀다.

특히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크로파크 브릿지는 총 1131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676가구다.

대림산업은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약 2만4000여 세대 분양에 나섰다. 2018년 1만5000세대 대비 59% 늘어난 수준이다. 자회사인 삼호와 고려개발도 1만 세대 규모의 분양을 기록했다. 자체사업장인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드'(계약고 3282억 원)도 주택사업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설 이후 분양 큰 장... 2~4월 8만가구 푼다

지난해 동기 보다 2배 많은 물량  
분양가상한제 유예종료 전 공급

설 이후 아파트 분양 큰 장이 열릴 전망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4월까지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로, 2019년 같은 기간(4만7739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2, 3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다. 청약업무 이관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된 데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영향으로 보인다.

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 2만1554가구 ▲서울 1만7797가구 ▲인천 8937가구 ▲대구 7160가구 ▲경남 5332가구 순으로 많다. 2~4월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8288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산, 화성, 양주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과천시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인 관심을 모았던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도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호조세를 보이는 부평구에서는 '부평부개서초교복재개발(총 1559가구)', '힐스테

이트부평(총 140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청약 열기가 고조됐던 송도에서도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총 1205가구)', '레이크송도3차(총 11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의 분양물량은 3만3304가구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중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체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 '광주유동재개발(총 2240가구)', 부산 사상구 '부산덕포1구역중흥S클래스(총 1572가구)' 등이 3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모니터에 '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과 관련해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우한 폐렴'에 주가 희비 제약 ↑ 中 소비업종 ↓

마스크 판매 기대... 동국제약 수혜  
여행 등 중대수서비스 업종 하락세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 증시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중국 증시 역시 하락세다. 국내 증시는 수혜주와 타격주의 성과가 상이하다.

22일 동국제약은 전일 대비 6.36% 오른 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동국제약은 우한 폐렴에 따라 마스크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가 몰리면서 이른바 우한 폐렴 수혜주로 꼽힌다.

아울러 백신 개발 업체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소독제로 쓰이는 차염산 소다를 생산하는 백광산업(4.49%), 슈퍼항생제 개발사인 인트론 바이오(2.28%) 등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여행, 화장품 등 중국 내수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해당기간 수익률은 각각 -9.2%, -8.3%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안전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중국 여행 수요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내 증권사는 잇따라 '우한 폐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코멘트가 담긴 투자 보고서를 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폐렴 확산 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은 지난 사스때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연구원은 "중국 춘절 전후 폐렴 전염 속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사태를 관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우려로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2.06포인트(0.52%) 하락한 2만9196.0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가 하락한 것은 최근 6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 LH, 보호종료아동에 매입임대 우선 공급

아동주거권 보장 등 정책 적극 이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

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되고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정연우 기자

## 올해 공인회계사 1차 경쟁률 4.94대 1 기록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8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쟁률은 4.94대 1이다.

지원자의 62.6%가 남성이며, 여성이 37.4%를 차지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다. 20대 후반이 46.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39.6%)과 30대 전반(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중인 지원자가 62.2%며, 상경계열 전공자가 77.6%를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